

구라보 - 시고쿠 섬 계획의 첫째 상품

“새로운 치노” 소재 개발

구라보는 사내의 각 공장이 제휴하여 개발한 시고쿠 아일랜드 계획의 첫 번째 상품으로 “나티코”, “트로피컬” 등의 새로운 표정이나 부드러운 촉감이 있는 치노¹⁾ 소재군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섬유 소재전에 출품할 것이다.

시고쿠 섬 계획은 사내의 각 공장이 특징적인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일촌 일품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고쿠 섬에 있는 방적의 마루가메 공장과 간논지 공장, 직포의 호쵸 공장, 가공의 도쿠시마 공장의 4개 공장이 기술을 융합시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상품은 깨끗하며 착용감이 좋은 치노 소재를 테마로 하여, 원료를 엄격하게 선정하였고, 방적 기술, 가공 기술로 새로운 소재감을 만들어 냈다.

이번에는 “트로피컬”, “나티코”, “윈드 스핀”, “메트로 필” 등의 소재를 개발하였다. “트로피컬”은 부드럽고 나긋한 새로운 촉감을 만들어 냈고, 나티코는 부드럽고 빈티지(vintage) 감각이 분명하며, 당김새와 차진맛이 있는 새로운 촉감을 만들어 냈다. 부드럽고 나긋한 감각을 내기 위하여는, 면 섬유의 섬도가 가는 면화를 100% 사용하고 있으며, 부드럽고 당김새와 차진 맛이 나는 감각은 실의 표피에 페루(Peru) 면을 사용한 면·면의 2층 구조로 만들어 냈다.

“윈드 스핀”은 특수 방적으로 최소 한계까지 실의 꼬임을 줄임으로써 실을 부풀리고, 소프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당김새와 차진맛이 있는 소재를 만들

었다. “메트로필”은 실의 위치에 따라 혼방률을 다르게 함으로써 새로운 표정을 만들어 낸 폴리에스터·면 혼방사이다. 이 실로 짠 원단을 가공하면 모쿠이도(異色撚絲)와 같은 새로운 표정이 만들어 진다. ♣

1) 치노(Chino) : 코마사의 2합사를 경·위사로 짠 면 능직물로서 배트(vat) 염료의 카키색으로 염색하며, 머서화 가공, 샌포라이징 가공하여 군의 제복이나 운동복, 노동복 등으로 사용됨